



## 공항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 결과보고

정책지원센터

2022.10.5(수)

### □ 회의개요

- 일시/장소: 2022.9.29.(목) 16:00~17:30 / 서울역1 스마트워크센터
- 목적: 해외사업 전문기관, 민간기업의 의견 청취, 해외공항 수주 활성화 전력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
- 참석: 총 11명
  - 국토부 공항정책과 강성습 과장, 이종문 사무관 등
  - 교통연구원 백승한 연구위원, 손정웅 연구원
  - 도화엔지니어링 김광호 상무, 희림건축 이병구 부사장
  - EY한영 전준양 회계사, 김앤장 한경수 회계사
  - KIND 고준석 실장, 해건협 지영구 차장

### □ 논의주제

- 우리나라 수주경쟁력 진단, 지원제도 활용 및 성과
- 수주과정의 어려움 등 제약조건,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 사항
-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활성화 방안, 사업관리 등 진출전략

### □ 주요내용

- 공항분야 사업기회가 많지 않아 사업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·유지에 애로가 있음
  - 제주2공항, 가덕도, 새만금 공항 등 국내시장 및 ODA 등을 통한 사업기회 창출을 통해 사업수행실적을 쌓아야 함
- 해외 도급사업 입찰 뿐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하며 이를 위해 2개 공항공사, ENG사, 시공사 등 협력체계가 필요함
- 기획·기본계획 등 첫단부 단계부터 공항공사들과 협력하여 진출이 필요하고 후속단계 사업에 참여해야 수익성이 있음
  - 예를들면 베트남 룡탄공항은 일본업체가 마스터플랜을 수행, 본사업 현상설계에 희림이 참여했으며, 설계 이후 본사업에 참여해야 향후 사업기회 확장에 도움이 됨
- 사업정보가 부족하여 참여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. 대사관 등 외교부, 국토부 등의 취합 정보를 기업 앞으로 제공해주기 바람

- 공항분야는 한정적인 좁은 국토에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공항 상황 상 해외 진출이 필수인 분야임
  - 신축, 개보수, 운영 등 어떤 분야를 타겟팅하느냐가 중요하며, 신규건설보다는 기존 공항을 현대화, 확장, 운영하는 Brown Field 진출이 필요함
- PPP, 재정, 컨설팅 사업 등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,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JV를 통해 보충하여 추진해야함
- 정보획득 및 투자가 용이한 공항공사들의 해외 투자 및 진출을 위해, 예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
- 보통의 금융기관들은 공항사업 투자에 우호적인 입장
  - 공항은 대체 수요가 없어, 수요가 안정적으로 수요Risk가 낮음
  - 보통 달러 거래로 환리스크가 적음
  - passenger fee로 전가 가능하여 가격탄력성이 좋음
- 공항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진출이 필요함, 관문공항은 투자비가 크고 리스크가 많으나, 국내선은 적은 투자비로 수익이 나는 공항을 선별하여 진출하는 전략 구사 가능
- 공항 주변 철도 및 도로 등 복합개발을 위해 다른 분야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
- 민간의 사업개발비는 수주 실패시 매몰비용으로 정부에서 이를 보전해준다면 투자활성화 및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
- 공공 측에서는 국격, 운용실적, 금융제안 등 여러 아이টে을 토대로 사업 추진을 제안하여 G2G계약으로 리스크를 낮추고 민간에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사업을 촉진해 나아가야 함

## □ 향후 계획

- 정부의 공항 해외수출 대책 마련 지원 및 해외공항개발협의회(11월 예정) 참석 등을 통한 업계 지원 계속